

잡지협회, 디지털 출판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어도비의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를 통한 새로운 전자출판 소개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은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08호에서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출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최승현 부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강진호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이사가 '디지털 출판 워크플로와 비전'에 대해, 한덕훈 디지털웍스 팀장의 '인디자인 CS5와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 시연'을, 이국희 아이뱅크 대리가 '여성조선 및 북스동아 활용사례'에 대해, 황정호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부장이 ACSP 2.0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국희 아이뱅크 대리가 기존의 전자출판에서는 선보이기 힘들었던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 '여성조선 및 북스동아 활용 사례'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 약 20여분동안 질문시간이 이어지는 등 참가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지준영)가 발표한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출판물을 모바일 장터를 통해 유통하고 이에 대한 소비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호스트 서비스와 뷰어 기술을 포함하는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Adobe Creative Suite)와 어도비 인디자인 CS5(Adobe InDesign CS5)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읽기경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적의 마케팅을 위한 유연한 전자상거래 모델 지원과 ▶독자 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판전문가들은 고정된 지면 레이아웃과 변형 가능한 유연한 디지털 레이아웃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래시 기반의 인디자인이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상호작용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출판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인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를 통해 콘텐츠의 배부와 과금은 물론, 출판물 내용과 광고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최적화도 가능하다.

어도비시스템즈의 크리에이티브와 인터랙티브 솔루션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와드화니(David Wadhvani) 수석 부사장은 "인디자인이 제공하는 효율적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환경과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의 다양한 서비스는 출판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잡지를 디자인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며, 독자와 광고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

는 보다 풍부하고 역동적인 독자 경험(reading experience)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의 서비스와 뷰어 기술

뷰어 기술 :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는 출판사 고유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기반이 될 어도비 에어(Adobe AIR)와 애플 운영체제(iOS)를 위한 어도비 콘텐츠 뷰어(Adobe Content Viewer)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블랙베리 플레이북,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 PC와 앞으로 곧 출시될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 상에서 혁신적인 독자 경험을 제공한다.

제작 서비스 : 직관적인 화면으로 제공되는 호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출판전문가들은 인디자인 CS5를 활용하면서 디자인 관련 협력 작업은 물론, 최종 기사의 순서를 취하고, 기사들을 업로드 한 후, 관련 이슈와 메타데이터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데스크톱과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독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미리 검토할 수 있다. 제작 상에 PDF와 HTML5 등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

배포 서비스 :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는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서비스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업계 선두의 태블릿 디바이스와 데스크톱을 통해 보다 많은 독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출판전문가들은 라이브러리 콘텐츠 대시보드를 통해서 출판 메타데이터와 기록 보관소에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콘텐츠 뷰어로 새로운 잡지 구입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 블랙베리 앱 월드(Blackberry App World),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 Market),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Google Apps Marketplace),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와 같은 모바일 장터를 통해 수익을 바로 창출해 줄 수 있는 유연한 판매 모델을 지원한다.

출판전문가들은 종이 잡지와 디지털 콘텐츠의 번들과 같은 고부가가치 판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독자들은 지속적으로 디바이스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

분석 서비스 : 어도비 사이트 카탈리스트(Adobe Site Catalyst, powered by Omniture)기반의 온라인 분석 툴을 통해, 콘텐츠를 최적화하고 광고 효과와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자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출판전문가들은 출판 워크플로우 상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광고 뷰(View)와 조회 수, 비디오 같은 역동적인 콘텐츠에 대한 다운로드 수를 포함해 중요한 광고와 구독자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마사 스튜어트의 생활잡지와도 협업

어도비는 현재 다국적 잡지 출판 기업인 콩드 나스트 퍼블리케이션즈와 살림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마사 스튜어트의 생활잡지 ‘리빙(Martha Stewart Living)’을 출판하는 옴니미디어(Omnimedia, Inc.) 등 유수의 출판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정적인 종이잡지가 아닌, 사용자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역동적인 디지털 잡지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돕고 있다.

콩드 나스트의 조 사이먼(Joe Simon)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우리는 어도비와 협조를 통해 와이어드(WIRED)와 뉴욕커(The New Yorker)의 디지털 출판을 준비하며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하드웨어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기술을 탄생시켰다. 더욱 뛰어난 디지털 포맷으로 재탄생 한 우리 잡지는 독자와 광고주를 완전히 매료시켰다”고 말했다.

옴니미디어의 마사 스튜어트 리빙(Martha Stewart Living)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겸 편집감독인 가엘 토웨이(Gael Towey) 편집장은 “어도비는 우리의 디자이너와 편집자, 콘텐츠 제작자들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디지털 잡지를 출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잡지 출판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 체험 프로그램과 구매방법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는 2011년 상반기 내에 ▶ 월별 서비스와 출판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되는 프로페셔널 에디션(월 699불)과 ▶다년 계약의 연간 서비스, 구독료 관리, 출력, 온라인거래 등의 백-엔드 출판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이뤄지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구분되어 출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도비 웹사이트(www.adobe.com/kr/)를 참고하면 된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